

# 설화

차례

1. 범아구리 설화
2. 열녀문 설화

처음 남원2리를 조사하기로 하고, 사전조사를 나왔을 때부터 '특별한 설화가 없다.'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이유인 즉, 옛날이야기를 알 법한 나이 든 세대들은 이미 돌아가셨고, 현재 남은 60, 70대의 어르신들은 이미 신식교육을 받은 터라 그 이전의 어르신들과 문화적인 단절을 겪었다고 한다. 결국 마을에서 전승되어오는 설화뿐만 아니라 제주도 설화의 내용 역시 제대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았다.

## 1. 범아구리 설화

### 1) 범아구리 설화 (1)

서의동 '서의마을' 간판이 있는 곳에 예전에 범아구리라는 돌이 있었다. 이 돌이 왜 범아구리인가 하면 호랑이의 입처럼 생겼다고 붙은 이름이다. 그런데 이 돌 근처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혼을 놓기도 하고 허깨비에 홀려 애기를 업고 산꼭대기까지 올라가기도 하며, 밤중에 그 길로 지나갔던 사

람이 급사하기도 하는 등의 괴상한 일들이 일어났다.

이 길은 특히 오랜 옛날부터 신랑신부가 지나가지 않았는데, 이 길로 신랑신부가 지나가면 범아구리에 홀려 신랑신부가 죽는 일 등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랑신부는 이동시 가장 큰 길이고 직선으로 뚫린 도로를 지나가지 못하고 빙 둘러 돌아갔다고 한다.

현재 이 범아구리는 도로확장공사로 인해 소실되었다. 그러나 지금도 역사적으로 내려오던 이야기에 의한 인식 탓으로 사람들은 이 근방을 잘 돌아다니지 않고, 결혼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앞을 지나다니지 않는다.



제보자: 현영순(여·66세)

## 2) 범아구리 설화 (2)

범아구리라는 돌이 있었는데 도채비나 헛개의 대한 출몰은 들어본 적이 없으나, 이 앞으로 새신부들은 절대 다니지 않았다. 이 앞으로 갓 결혼한 또는 결혼하기 위하여 지나가는 신부의 혼을 이 범아구리가 빼어 간다는 흉흉한 이야기를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범아구리에 이런 흉흉한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니고, 신령이 깃들어 좋은 역할 역시 한다고 믿었다.

예전에 제주도에 호열자가 돌던 시절이 있었다. 이 시절 마을에는 막을 설치하여 남자들이 교대로 지키며 외지인들이 출입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였다.

그러나 이 동네에는 범아구리가 존재하여 이 신령이 돌립병, 굶은 병을 막아 주었다. 그로 인해 이 동네에는 굶은 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없었다고 한다. 현재는 도로확장공사로 인해 범아구리의 목이 사라져 버렸다고 한다. 하지만 이 동네 사람들은 아직까지 결혼하는 신부들을 이쪽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하고 일부러 멀리 돌아온다고 한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특별하게 생긴 돌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도로 설화가 형성된 것이 아니라 새신부가 범아구리 주변에서 흉한 일을 당한 일이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인식이 굳어지고 금기가 형성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한국 신화에서 범이라 하면 '신령'의 이미지를 가진 존재이기에 금기된 면과 더불어 마을을 질병에서 지켜주는 수호신과 같은 역할 역시 담당했다고 볼 수 있다.



제보자: 현달호(남·74세)

## 2. 열녀문 설화

### 1) 열녀문 설화 (1)

옛날 정씨부인이 있었는데 이 정씨부인은 손바닥만 한 마로 베 한필을 팔 정도로 손재주가 아주 좋았다고 한다. 그 소식을 들은 목사가 그렇게 손재주가 좋은 사람이 있느냐 하며 정씨부인을 자신의 관아로 불러 정씨부인이 그 관아로 당도했다. 목사가 관아로 온 정씨부인을 보고 그 손이 그렇게 신기한 재주를 부리는 손입니까 하며 손목을 잡았는데 정씨부인이 이런 더러운 놈이 외간 여자의 손을 잡는구나 하며 그 길로 자신의 손목을 칼로 내려쳐 자결하였다. 그리하여 이렇게 정조를 지키는 사람이 있냐 하여 열녀문이 세워졌다.



제보자: 정남휴(남·94세)

## 2) 열녀문 설화 (2)

예전 고려시절에 '합적의 난'이 일어났었는데, 이 때 석곡리 포개라는 몽고 사람이 죽었다. 이 석곡리 포개의 부인이 정씨였는데, 군관이 정씨부인에게 남편의 전사했다는 소식을 가지고 찾아왔다. 그런데 그 정씨부인의 미색이 대단하였던지라 군관은 그 미색이 탐이 나서 홀몸이 된 정씨부인에게 수작을 걸었다. 그러자 정씨부인이 은장도를 가지고 목을 찌르려고 하며 정조를 지키려 하자 군관이 더 이상 수작을 걸지 못하고 돌아갔다. 그 후에도 정씨부인이 정절을 지키며 아이도 없이 수절하여 오랫동안 그 집을 지키며 살았다고 한다. 이렇게 수절하여 살았기에 열녀문이 세워졌다고 한다.

열녀문 설화도 두 가지로 나뉘어 졌다. 한 가지는 정씨 집안자손에서 퍼트려지며 구전된 이야기인 듯 하고 한 가지는 역사적 사실과 구체적인 사물을 바탕으로 형성된 이야기로 보인다.

정씨 가문과 관련된 이야기의 제보자는 94세의 남성으로 부락에서 정진사라 불리며 구학문에 대한 학식이 깊은 분으로 알려져 있다. 내용에 대한 역사적인 신빙성은 믿을 수 없으나, 이 이야기가 가문 또는 부락 내에서 구전되었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반면, 다른 이야기의 제보자는 신식교육을 받으신 분이다. 결국 이 분은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을 구전보다 타 자료 가령 책과 같은 2차적 자료를 통하여 습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보자: 현달호(남·74세)

■조사자: 임민규(06), 고민석(06), 김창홍(07), 고동희(08), 문혜경(08),  
김지선(09), 한다미(09), 송관룡(09)